■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91-334.
http://doi.org/10.17948/kcs.2019..84.291

18세기 경화사족 金用謙의 삶과 교유

박현순(朴賢淳)*

목 차

1. 머리말
2. 壯洞金門이라는 배경의 빛과 그늘
3. 영조대 말에 시작된 교유의 세계
4. 노년의 위기와 영달
5. 맺음말

국문초록

嘐嘐齋 金用謙(1702-1789)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의 문제적 지식인들은 그와 막역하게 교유하였고, 그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글은 18세기 후반의 청년들이 왜 김용겸의 주변에 모여 들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의 삶과 교유관계를 추적하였다.

김용겸은 장동김문이라는 노론 세가에서 출생하여 누대에 걸쳐 만들어진 노론 낙론계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을 둔 김용겸은 정통적인 도학자, 예학자의 면모를 갖춘 노론 낙론계 학자였다. 그러나 김용겸은 당시의 학풍을 '假道學'이라고 규정하고 古禮에 천착하면서 博學을 통해 '眞道學'을 추구하였다. 박학은 도학을 위한 학문적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학보다는 박학이라는 방법론이 그의 학문적 위상을 대변하게 되었다.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김용겸이 청년들의 이목을 끈 것도 이 지점이다. 그는 기성의 학계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長幼와 貴賤을 가리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로 젊은이들과 학문적으로 교유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김용겸의 교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김용겸과 청년들의 교유에는 전승해야 할 학문적인 의제도 없었고, 그 관계를 사제 관계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김용겸이 그 중심에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 어울리며 서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스스로의 인식을 확장해 갔을 뿐이다. 박학을 매개로 하는 이 같은 학문적 네트워크의 존재를 18세기 후반 한양 지식인계의 주요한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金用謙, 黃胤錫, 李德懋, 京華士族, 博學.

1. 머리말

嘐嘐齋 金用謙(1702-1789)은 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는 특출난 정치가도 사상가도 문인도 아니었으며, 저술은 물론 詩文도 거의 전하지 않는다.[1]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연구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그가 어울렸던 名士들 때문이다. 洪大容, 朴趾源, 李德懋, 朴齊家 등 일명 연암그룹이 그들이다.[2] 아울러 장동에 세거한 安東金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도 그에게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金尙憲의 현손으로 金昌緝의 아들이자 金昌集・金昌協・金昌翕・金昌業의 조카였다. 이와 같은 가문적 배경 속에서 김용겸은 김창협・김창흡에서 이어진 노론 낙론계 학풍을 계승하여 연암그룹에 전승한 인물로 부각되었다.[3]

---

1) 김용겸의 저술은 「永禧殿志跋文」(1751), 『永禧殿志』, 장서각 소장; 「花潭先生文集跋」(1752), 『花潭集』; 「淸陰年譜跋」(1767), 『淸陰集』이 확인된다. 김용겸은 세 책의 편찬자이기도 하다. 김용겸이 지은 詩는 성대중의 「詩話」에 실린 한 편이 확인되며, 지인들과 함께 지은 聯句는 金信謙, 李敏輔, 黃胤錫의 문집에서 5편이 확인된다. 이외에 이한진 편 『청구영언』에서 시조 한 수가, 황윤석의 『이재난고』에서 小令 1수가 확인된다. 오세창이 편찬한 『槿墨』(성균관대 박물관 소장)에는 간찰 1통이 실려 있다.

2) 吳壽京, 「嘐嘐齋 金用謙 硏究」, 『漢文學報』 제2집, 우리한문학회, 2000.

3)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金門 연구』, 일지사, 2007, 294-297면; 조성산, 「18세기 洛論系의 『磻溪隨錄』 인식과 홍계희 경세학의 사상적 기반」, 『조선시대사학보』 제3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143-145면; 「18세기 洛論系學脈의 변모양상 연구」, 『역사교육』 제10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7, 68-69면, 80-81면; 김경, 「李德懋의 金昌協 비평 수용 연구」, 『어문논집』 제78호, 민족어문학회, 2016, 130-132면.

물론 김용겸이 교유한 인물들이 연암일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黃胤錫의 『頤齋亂藁』를 활용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황윤석과 김용겸의 관계도 주목되고 있다.[4] 또 이덕무, 황윤석, 成大中, 朴胤源 등은 김용겸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김용겸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인식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김용겸과 교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대개 그보다는 한두 세대 어린 청년들이었다. 그들이 서로 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개 영조대 말년으로 김용겸이 60대 후반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다. 그들은 분명 다른 세대에 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세대를 초월한 벗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배들이 남긴 김용겸의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지원은 김용겸을 풍류가로 기억한 반면, 황윤석은 박학자로, 박윤원은 도학자・예학자로 기록하였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김용겸과 교유하고 모두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 각자가 기억하는 김용겸의 모습은 서로 달랐다. 나아가 세 사람의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교류도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글은 18세기 후반의 청년들이 왜 김용겸의 주변에 모여 들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온 그의 삶과 교유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유의 매개를 추적해 보았다.

흔히 교유관계를 설명할 때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배경적인 요인들을 매개로 꼽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의미 있는 교유를 이어간 인물은 소수이다. 그들의 교유에는 서로 호감을 갖게 하는 특별한 매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매개를 추적하여 그 교유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유를 전후한 시기 김용겸의 삶

4) 박현순, 「지방 지식인 黃胤錫과 京華士族의 교유」, 『한국사연구』 제163호, 한국사연구회, 2013; 김수현, 「黃胤錫의 일기 『頤齋亂藁』에 언급된 樂律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8집, 한국유교학회, 2014; 구만옥, 「18세기 후반 金錫文과 『易學圖解』의 발굴—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57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을 추적하여 그 교유의 시대적 특성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김용겸은 장동에서 세거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집안은 조선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전형적인 경화사족이었다. 김용겸과 청년들의 교유도 18세기 후반 한양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교유가 경화사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용겸은 당대에 奇人, 狂人으로 인식될 만큼 남다른 행동 양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 한양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용겸과 청년층의 교유 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김용겸이 70세에 가까워진 영조대 말부터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반면 정조대 김용겸은 음관 출신으로 승지, 판서에 이르는 영달을 누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황에 맞추어 김용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영조대까지 김용겸의 삶을 추적하여 그의 개인적인 이력을 고찰하였다. 이어 영조대 말부터의 교유관계와 그 매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조대 관료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김용겸의 삶과 교유를 재조명하였다.

2. 壯洞金門이라는 배경의 빛과 그늘

김용겸은 영의정을 지낸 金壽恒의 다섯째 아들 金昌緝(1662-1713)과 부인 남양홍씨(1662-1742) 사이에서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났다. 숙종대 영의정을 지낸 金昌集, 성리학자이자 문인으로 일세를 풍미한 金昌協과 金昌翕이 그 숙부이다. 이런 화려한 배경만 놓고 보면 상당히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법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숙종 39년(1713) 열 두 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부친 김창즙은 죽기 전 친구 金時保(1658-1734)에게 어린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였고, 김시보도 이를 자신의 일로 자임하였다.[5] 김용겸의 모친 남양홍

5) 金時保, 「祭圃陰文」(1714), 『茅洲集』 권10.

씨는 남편이 죽은 후 김시보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열의를 보였다. 김용겸은 몇 년 동안 김시보의 집을 드나들었다.[6]

어머니 남양홍씨의 外叔인 趙裕壽(1663-1741)도 어린 시절 김용겸의 교육에 힘을 보탰던 듯하다. 부모를 여읜 홍씨의 남매들이 조유수에게 의지했다는 것에 비치어 보면 조유수는 김용겸에게 외할아버지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듯하다.[7] 그의 문집인 『后溪集』에는 김용겸의 시를 차운하거나 그를 위해 지은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조유수는 장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악시단'의 동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8] 그러나 그는 숙종 15년(1689) 朴世采의 신원을 청하는 館學 유생 상소에 疏頭로 활동한 소론계 인물이기도 하였다.[9]

김창흡도 김용겸의 수학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한때 김용겸은 수락산으로 좇아가 김창흡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10] 그러나 도성을 떠나 있는 날이 많았던 김창흡은 김용겸에게 김시보의 아들 金純行(1683-?)과 외숙부들에게 학업을 청하도록 하였다.[11] 이를 보면 숙부들이나 사촌들이 김용겸의 어린 시절 수학을 일상적으로 보살피지는 못했던 듯하다.

어머니 남양홍씨의 남동생인 洪九澤(1668-1693)은 김창흡의 문인으로 백악시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인 洪應昌(1688-?)은 김창즙의 집에서 자라며 수업하였고, 김용겸도 외가 식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2]

그런데, 홍씨가의 묘갈문자를 지은 인물들을 보면 吳道一(1645-1703), 崔錫鼎(1646-1715), 徐宗泰(1652-1719), 趙顯命(1690-1752) 등 모두 소론계의 핵심인물들이었다.[13] 따라서 남양홍씨의 집안도 외숙인 조유수와 마찬가

6) 金時保, 「與用謙書」(1716), 『茅洲集』 권9.
7) 趙裕壽, 「伯姊洪淑人墓誌」, 『后溪集』 권7.
8) 김형술, 「白岳詩壇의 眞詩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6-21면.
9) 洪良浩, 「后溪趙公墓碣銘」, 『耳溪集』 권30.
10) 趙裕壽, 「水落不知何等山也 而僧歸儒往 不耐作別 第以數三長短句 贈濟大之行」, 『后溪集』 권5.
11) 金昌翕, 「寄用謙」(1713), 『三淵集』 拾遺 권14;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6월 15일 계묘.
12) 趙顯命, 「通德郎洪公[九澤, 1668-1693]墓表」, 『歸鹿集』 권14.
13) 吳道一, 「領議政益寧府院君鶴谷洪公[天民, 1526-1576]謚狀」, 『西坡集』 권24; 崔錫鼎, 「領議政文靖洪公[瑞鳳, 1572-1645]神道碑銘」, 『明谷集』 권23; 徐宗泰, 「贈領議政行江原道觀察使洪公[命一, 1603-1651]墓碣銘」, 『晩靜堂集』 권14; 金昌翕, 「歙谷縣令洪公[處于, 1648-1693]墓碣銘」, 『三淵集』 권29; 趙顯命,

지로 노소론의 분기 이후 소론계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김용겸은 어린 시절 노론가와 소론가의 교육을 함께 받고 있었던 셈이다.

김용겸은 열다섯 살에 관례를 치르고 沈珙(1681-1733)의 장녀 청송심씨(1701-1764)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처가 역시 소론 집안이었다. 김용겸이 혼인한 시점은 노론과 소론 사이의 최대 쟁점이던 懷尼是非에 대해 숙종이 노론의 손을 들어 준 병신처분이 내린 이후이다. 이 시점을 염두에 두면 노론의 핵심 집안과 소론 집안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혼인은 다소 의아스럽다. 여기에는 소론계였던 외가의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뒤에 어머니 홍씨의 친정 조카인 洪景游가 김용겸의 동서가 된 것을 보면 남양 홍씨와 청송심씨 집안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몇 년 후 신임사화가 일어났다. 백부인 영의정 김창집은 역적으로 사사되었으며, 그 장남 金濟謙과 장손 金省行도 죽음을 맞이하였다. 김용겸은 사촌형인 김신겸 등과 함께 성주에서 사사당하는 김창집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이를 전후하여 김창흡과 김창업도 세상을 떴다. 김용겸과 사촌형제들은 연좌 죄인으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유배되었다. 정치, 학문, 사상의 중심에 서 있던 집안이 일시에 풍비박산나는 참혹한 경험이었다.

김용겸은 어머니 홍씨, 처 심씨와 함께 전주에서 4년을 보냈다. 金邁淳(1776-1840)이 쓴 김용겸의 행장에는 장인 심공이 소론이었지만 사화 당시 노론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김용겸이 유배 중에 부인과 일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14] 사실이야 어쨌건 장인이 소론이었다는 사실은 김용겸의 이력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처가와 외가가 소론계였던 탓에 김용겸은 보다 유연하게 소론계 인물들과도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겸은 처조카인 徐浩修와 그 부친인 徐命膺에게도 호의적이었다.[15]

영조 1년(1725) 3월 연좌죄인들은 일제히 방면되었다. 김창집을 비롯한 노론 사대신도 복권되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김씨 집안의 형제들은 선대의

「通德郎洪公[九澤, 1668-1693]墓表」, 『歸鹿集』 권14.

14)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15) 서호수는 徐命膺의 아들로 백부 徐命翼의 양자가 되었는데, 서명익이 김용겸의 동서였다.

문적을 정리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다. 4년에 걸친 환란을 수습하고 집안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즈음 안동김씨족보(1727), 김창즙의 『圃陰集』(1726), 김창흡의 『三淵集』(1732)이 간행되었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김용겸도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형제들이 김용겸에게 안동김씨족보의 간행을 맡긴 것이다.[16] 김용겸은 뒤에도 안동김씨족보의 증보에 뜻을 두어 직접 凡例를 정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년까지도 이 일을 자신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였다.[17] 이를 통해 그가 譜學에도 상당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영조 43년(1767)에는 송시열이 편찬했던 김상헌의 연보를 수정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18] 김용겸은 장동김문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신임사화는 그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론이 집권한 것도 잠시 영조 3년 다시 소론이 정권을 잡으면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의 관작이 추탈되었다. 장동김문의 자제들은 김창집이 복관될 때까지 다시 도성을 떠나 선대의 유업이 있던 경기도 양주와 여주, 영평, 청풍 등지를 떠돌며 은거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김용겸 역시 교외에 거주하며 도성에는 자주 출입하지 않았다고 전한다.[19] 영조 14년(1738)경에는 김원행과 함께 여주, 청풍 등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0] 김창집은 노론 4대신 가운데서도 가장 늦은 영조 16년(1740)에야 관작이 복구되었다.

그 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김용겸은 李縡와 朴弼周의 문하에 출입하였다.[21] 그리고, 이재가 道峯書院 원장으로 있던 영조 21년(1745) 무렵에는 院任을 맡기도 하였다. 이즈음 김용겸은 분명하게 노론 집안의 청년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노론학계의 중심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이즈음 유일로 참봉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

16) 金信謙, 「題族譜序後」, 『檜巢集』 권9.
17) 金履安, 「安東金氏族譜跋」, 『三山齋集』 권8.
18) 金用謙, 「淸陰年譜跋」(1767), 『淸陰先生年譜』.
19)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20) 李載亨, 「與金伯春」, 『松巖集』 권2; 「與李校理」, 『松巖集』 권2.
21) 李縡, 「答金濟大【用謙】」(1737), 『陶菴集』 권14; 朴弼周, 「答金濟大【用謙】」(1743), 『黎湖集』 권15.

김용겸은 누대에 걸친 혼인과 학연으로 노론 낙론계의 인물들과는 대부분 연줄이 닿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그와 관련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비교적 비슷한 연배의 인물로는 金信謙(1693-1738), 閔遇洙(1694-1756), 兪肅基(1696-1752), 南有容(1698-1773), 金元行(1702-1772), 李麟祥(1710-1760), 李最中(1715-1784), 李敏輔(1717-1799) 등이 있다.

이외에 본인 스스로 절친한 관계로 꼽은 인물로는 洪啓禧(1703-1771)가 있었다.[22] 홍계희의 손자 洪相簡(1745-1776)은 김용겸의 손녀 사위이기도 했다. 홍계희는 이재의 문도들 가운데서도 象數學과 經世學에 관심을 갖고 의리론의 경계를 벗어나 다방면에 관심을 쏟은 박학자였다.[23]

김용겸 역시 일찍부터 博學으로 이름을 얻었으며,[24] 김창흡에 대해서도 易學과 象數에 침잠하여 『易學圖解』를 지은 金錫文과 역학을 강론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큼 상수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25] 또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필사해서 탐독하였는데, 이것은 홍계희가 『반계수록』의 간행을 주청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김용겸에게는 홍계희가 지기였던 셈이다.

안동김문은 일찍부터 문장으로 일세를 주름잡았지만 김용겸은 개인적으로 문장에는 크게 뜻을 두지 않았던 듯하다.[26] 또 스승인 이재처럼 의리론에만 집중하지도 않았다. 이런 면에서 김용겸은 보다 자유분방했던 김창협・김창흡의 학풍을 계승한 측면이 보다 강했다.[27]

영조 16년(1740) 김창집이 복권된 후 김용겸도 벼슬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조 19년(1743)에는 宋寅明이 그를 유일로 천거하였고 영조 21년에는 만녕전 참봉, 영조 22년에는 공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이 시점에 그가 도봉서원 원임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직 제수에는 장동김문의 후예라는 점과 노론학계의 인맥이 작용한 듯하다. 실제 벼슬살이를 시작한

22)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3월 23일 병오.
23) 조성산, 앞의 글, 2004.
24)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8월 8일 을묘.
25)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8월 16일 을축.
26) 黃胤錫, 「嘐嘐齋金判書丈【用謙】挽」, 『頤齋遺藁』 권5;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27) 조성산, 앞의 글, 2004; 앞의 글, 2007.

것은 47세 때인 영조 24년(1748)으로 선공감 가감역이 첫 벼슬이었다. 이후 김용겸은 평생 음관으로 자처하였다.

김용겸은 적극적인 출사관을 갖고 있었다. "선비가 벼슬하지 않는 것을 고상하다고 여기는 것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정절로 여기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며 벼슬살이를 회피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보았다. 나아가 오히려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며 도학자로서의 헛된 명성을 피한다고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언행은 奇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28] 이런 면에서 김용겸은 산림의 길을 선택한 동갑내기 당질 김원행과는 차이가 있었다.

김용겸은 관료로서 상당히 직무에 충실한 면모를 보였다. 金邁淳은 김용겸의 행장에서 그가 낮은 관직에 있을 때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벼슬살이도 비교적 순탄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였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음관의 특성상 특별히 정치적인 파란을 겪지도 않았다. 그리고 영조 48년(1772)에는 충신 자손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당상관에 올라 오위장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조대 김용겸은 관료로서 그리 주목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장동김문이라는 집안 배경과 노론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적으로 벼슬살이를 이어가기는 하였지만 그는 경화사족 출신의 음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대 김용겸의 경력 중에서는 특별히 주목되는 점도 있다.

우선 영희전 참봉으로 있을 때 『永禧殿志』(1751)를 편찬하고,[29] 세손익위사에 있을 때에는 先生案을 편찬하는 등 관서의 典故를 정리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다. 김용겸은 스스로 이 일에 癖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30] 뒤에 형조참판이 되었을 때 정조는 刑曹志 편찬을 당부하였고, 정조 2년(1778) 공조참판이 되었을 때는 工曹志 편찬에 착수하기도 하였다.[31] 관서지 편찬은

28)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趙秉德, 「與申幼安」, 『肅齋集』 권6.

29) 『永禧殿志』,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4년 후인 1754년 5월 영희전을 찾은 영조는 관원들에게 『영희전지』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金允謙'이 만든 미완성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윤색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김윤겸'은 '김용겸'의 誤傳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5월 5일 계미.

30)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5월 2일 갑술[임신].

31)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6월 24일 임오;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그가 일관되게 유지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는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리하는 데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 영조 44년(1768)과 영조 48년(1772)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장악원정을 역임하였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그는 평소 음악을 즐기기도 하였거니와 장악원에 근무할 때는 음악서적을 읽으며 樂律의 이해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 음악에 대해서도 남다른 조예를 갖추었다. 이로 인하여 정조 2년(1778) 음관으로서는 최초로 장악원 제조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음악은 그의 전문분야 중 하나였다.

개인적으로는 영조 28년(1752)에 徐敬德의 『花潭集』을 새로 편차하였다는 특이한 경력이 있다. 이 책은 寫本이 세간에 유포되었고, 영조 46년(1770) 경 개성 유생들이 南公轍의 소개로 김용겸을 찾아 문집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 책에는 김용겸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가 『花潭集』에 주목한 것은 서경덕의 象數學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32]

또 김용겸은 젊은 시절부터 禮學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뒷날 그는 스스로 예학에 癖이 있어서 다양한 예서를 탐독하였다고 언급하는데, 특히 주희의 『儀禮經傳通解』를 깊이 탐구하여 그 小註까지도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이런 탓에 그는 예학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었다.[33]

김용겸은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영조대 후반까지도 그의 행적을 보여주는 기록은 많지 않다. 실제 그에 대해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대다수가 노년에 어울렸던 사람들이다. 그의 면모는 후배들의 기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용겸의 행적은 동년배들보다는 후배들에게 보다 주목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김용겸이 후배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32) 정호훈, 「조선후기 『花潭集』 刊行의 推移와 徐敬德 學問」, 『한국문화』 제84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59-61면.

33)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6일 을사;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3. 영조대 말에 시작된 교유의 세계

1) 노년의 교유 인물들

김용겸은 중년 이후 수령으로 나간 몇 년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성 내에서 지냈다. 그의 주거처는 선대부터의 세거지인 장동이었다.[34] 그의 집은 김상용 후손의 종가인 太古亭 서북쪽이었는데,[35] 호로 사용한 瓠泉, 無厭軒, 嘐嘐齋 등은 모두 이 집과 관련된 것이었다.[36]

김용겸은 이웃의 다른 집에 거처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상헌의 종손인 金履鐸이 수령으로 내려갔을 때는 김상헌의 고택인 無俗軒·最樂軒에서 거주하였고, 김창흡의 종손인 金履鉉이 수령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影堂인 篤忠堂이 있는 종가에 거주하였다. 또 김상용의 종손 金道淳이 지방관으로 내려갔을 때는 太古亭이 있는 김상용의 종가에서 거주하였다.[37] 다른 집에서 거주할 때에는 그곳을 '嘐嘐行窩'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38] 집을 비운 주인 대신 장동의 고가를 지킨 김용겸은 장동김문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존재였다.

황윤석은 영조 45년(1769) 3월 안동김씨족보를 빌려 보기 위해 장동집으로 김용겸을 방문하였다. 황윤석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용겸은 이미 博學으로 이름이 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한다.[39] 얼마 후 황윤석은 김용겸에게 元重擧(1719-1790), 沈有鎭(1723-1787), 洪啓禧를 직접 소개 받았고, 李漢鎭(1732-1815)의 글씨도 받았다. 이들이 당시 김용겸과 가깝게 지내던 인물들이었다.

---

34) 김용겸의 부친 김창즙은 1701년 1월 한성부 북부 俊秀坊 옛 사포서 터의 북쪽에 새로 집을 지어 이주하였는데, 김용겸의 노년까지 이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집이 김용겸의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金昌緝, 「年譜」, 『圃陰集』 부록;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35)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3월 16일 기해.

36)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5월 17일 무술; 1778년 7월 초9일 병신. 김용겸은 이외에도 僑翁, 知拙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다. 李最中, 「與僑翁蠢庵共賦」, 『韋庵集』 권3; 오세창 편, 「金用謙 간찰」, 『槿墨』, 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37) 황윤석, 『이재난고』 1764년 4월 7일 무자; 1770년 6월 30일 갑신; 1770년 7월 21일 을축; 1772년 9월 20일 임자; 1776년 8월 4일 계묘; 1779년 2월 29일 갑신. 김용겸이 세 집에 거주한 것은 집주인들과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었다. 김상헌의 종손 김이탁은 김수증의 장자인 김창국의 양손으로 김창흡의 親孫이었고, 김도순은 김시보의 증손이었다.

38) 황윤석, 『이재난고』 1772년 9월 20일 임자.

39)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3월 16일 기해.

박지원, 홍대용 등 연암그룹과의 교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연암그룹이 형성된 것도 영조대 말로 이야기되지만[40] 각 개인은 김용겸과 서로 다른 인연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홍대용은 김용겸의 친구인 洪梓(1707-1781)의 당질이었고, 李書九(1754-1825)는 14세 때인 영조 43년(1767)에 김용겸의 주례로 관례를 치렀다. 이덕무는 김용겸과 절친한 원중거의 처남으로 영조 말년에 김용겸의 庶堂姪인 金龍行과 어울려 지냈다.[41] 따라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김용겸과 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연암그룹이 결속하기 이전이었을 수도 있다.

김매순은 김용겸이 중년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해서 상대의 貴賤과 모임의 雅俗을 가리지 않고 뜻이 맞고 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다고 기록하였다.[42] 이즈음 김용겸은 몸소 쫓아다니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는 이덕무, 박제가, 원중거, 성대중 같은 서얼들도 있었고, 중인 출신으로 국왕에게 시무책을 올린 宋奎斌도 있었다.[43] 김용겸은 서리 출신의 여항시인 朴昌元의 문집 편찬에도 참여하였다.[44] 그는 이미 중년부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폭넓게 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년에 『瞻謁錄』이라는 일종의 교유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45]

김용겸은 만년에 효효재 뒤편에 朝爽閣이라는 누각을 짓고 지인들에게 朝爽閣의 여덟 가지 풍경을 제재로 한 8詠을 짓게 하였다. 8경은 장동의 명승지인 백악, 인왕산, 필운대, 경복궁 옆길, 대은암, 태고정과 김용겸의 개인적인 일상을 담은 거문고와 책이었다.[46] 김용겸은 장동이 제공하는 자연 풍광 속에서 책과 거문고를 가까이하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장동, 책,

---

40) 오수경, 『(수정증보판)연암그룹연구』, 월인, 2013, 49-53면.
41) 南公轍, 「金舜弼【龍行】傳」, 『金陵集』 권13.
42)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43)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7월 19일 신축;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6월 24일 임자.
44) 徐有魯, 「朴澹翁集跋」, 『朴澹翁集』.
45) 황윤석, 『이재난고』 1776년 8월 초4일 계묘.
46) 8경은 백악의 아지랑이[白嶽晴嵐], 인왕산의 상쾌함[西山爽氣], 필운대 꽃놀이[雲臺看花], 달밤의 경복궁길 산책[天街步月], 대은암의 물구경[隱岩臨流], 청풍계 태고정의 단풍놀이[古亭賞楓], 맑은 날 책말리기[淸晝散帙], 고요한 밤에 거문고 타기[靜夜理琴]로 제시되었다.

거문고는 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황윤석은 정조 2년(1778) 7월 조상각을 찾아 8詠의 시를 부탁받았다. 당시에 이미 글을 지은 사람은 50여 인이었다. 이 8영을 지은 사람들이 당시 김용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현재 글을 지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趙明鼎(1709-1779), 沈有鎭, 沈定鎭(1725-1786), 黃胤錫(1729-1791), 洪大容(1731-1783), 成大中(1732-1809), 朴胤源(1734-1799), 李德懋(1741-1793), 朴齊家(1750-1808), 李書九 등 10명이 있다.[47] 이 중 동년배인 조명정을 제외하면 모두 20대-50대의 사람들로 당시 77세였던 김용겸의 아들 또는 손자뻘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중 황윤석, 성대중, 박윤원, 이덕무가 김용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글을 남긴 인물들이다.

조상각 8영의 작자들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른바 '연암그룹'으로 일컬어지는 홍대용, 성대중,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뿐 아니라 이들과 어울렸던 朴趾源(1737-1805), 李漢鎭, 南公轍(1760-1840),[48] 李萬運(1723-1797) 등도 김용겸의 가까이에 있었다. 김용겸이 연암그룹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포괄되지 않는 황윤석이나 박윤원과 같은 인물도 있다. 황윤석은 뒤에 홍대용, 이덕무, 이만운과 절친하게 지냈지만 박지원, 박제가와는 안면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한진, 성대중과는 직접적인 교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황윤석이 홍대용과 어울린 것은 易學·算學이 매개가 되었고, 이만운·이덕무와 어울린 데는 博學과 典故라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매개가 되었다. 정통성리학자이자 예학자인 박윤원은 박지원의 족형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으며, 墓田 문제로 박지원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모두 김용겸과 절친한 관계였지만 김용겸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김용겸이 이들과 가깝게 지내게 된 데에는 族分이나 世誼가 하나의 계기가

47)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7월 9일 병신.
48) 김용겸은 南有容과 친구 사이로 南公轍의 관례 때 大賓이 되었고, 남공철은 김용겸의 팔순 잔치를 기념하는 서문을 썼다. 南公轍, 「壽金參判【用謙】八十歲序」, 『金陵集』 권11.

되었음 직하다. 그는 평생 50여 명의 冠禮에 賓이 되어 지인과 친구들의 자제들과도 인연을 이어갔다. 이서구와 남공철이 대표적이다.[49] 또 이한진은 어머니가 김창흡의 손녀, 박윤원은 외할머니가 김창협의 딸로 어려서부터 장동 근처에 살았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홍대용은 친구 洪梓의 당질, 이만운은 누이가 金元行의 며느리였다. 이런 관계는 그들이 교유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김용겸과 적극적으로 교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유를 이어가는 데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매개가 필요했다.

2) 풍류와 음악의 세계

조상각 8영의 하나로 거문고가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용겸은 음악 애호가였다. 그에 대한 기록에는 거문고와 음악, 風流에 대한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成海應은 백악 아래의 풍류가 그로 인해 성했다고 평가하였으며,[50] 金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백악 아래의 풍류가 사라졌다고 노래하였다.[51] 그는 이즈음 장동의 풍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김용겸의 풍류에 관해서는 두 가지 글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나는 홍대용의 집에서 열린 음악회의 풍경을 그린 성대중의 「記留春塢樂會」이다. 홍대용, 이한진, 김억, 홍경성, 유학증 등의 연주를 듣고 감동한 김용겸이 홀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주자들에게 큰절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박종채가 아버지 박지원의 언행을 기록한 『過庭錄』의 기록이다. 역시 홍대용의 집에서 홍대용, 김억, 박지원, 김용겸 등이 모여 생황과 양금 연주를 들었는데, 김용겸이 홀연히 사라져 찾아보니 눈이 내린 겨울밤 수표교 위에서 거문고를 안고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52] 이 글의 주인공은 청중으로 참여한 김

49)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1월 17일 을축;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南公轍, 「年譜」, 『歸恩堂集』 권10; 李書九, 『惕齋自述』.
50) 成海應, 「世好錄」, 『研經齋全集』 권49.
51) 金熤, 「金判書【用謙】輓」, 『竹下集』 권4.
52) 成大中, 「記留春塢樂會」(1784), 『靑城集』 권6;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과정록—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2003, 37면.

용겸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김용겸은 음악을 듣고 그 조화에 감동하고 그 감동을 몸으로 표현하는 풍류의 대가였다.

김용겸이 비단 이들과만 음악과 풍류를 즐긴 것은 아니다. 김용겸은 어느 날 황윤석이 근무하던 의영고에 놀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李時昉(1594-1660) 후손가에 소장된 100여 년이 더 된 古琴을 빌려와 장악원 典樂 安彭壽를 불러 연주하게 하였고, 다시 軍門樂手 金興澤을 불러 해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또 어느 날은 황윤석과 원중거를 집에 초대하여 朗善君 李俁(1637-1693)의 유품인 거문고를 빌려와 梁德壽가 지은 『梁琴新譜』(1610 간행)를 보고 직접 만대엽을 연주하였다.[53] 김용겸에게 음악은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용겸의 교유 인물 중 음악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는 우선 京山 李漢鎭이 있다.[54] 이한진은 김용겸과 이웃하여 살면서 김용겸에게 음악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는 김용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이다. 성대중은 김용겸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한진을 가장 아끼고 온갖 풍류를 그와 함께 즐겼다고 기록하였는데,[55] 성대중 부자에게는 이한진과 김용겸이 늘 짝을 이루고 있었다.

이한진은 특히 퉁소를 잘 불었는데, 閔百順(1711-1774)은 그를 위해 특별히 玉으로 퉁소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였다.[56] 민백순은 金昌集의 외손으로 김용겸과는 5촌 숙질간이었으며, 홍대용의 청으로 『海東詩選』을 편찬하고, 홍대용이 중국 문인들에게 받은 편지를 모은 『會友錄』의 서문을 쓰는 등 홍대용과도 가까이 지냈고, 성대중과도 절친한 사이였다.[57]

김용겸이 음악이론 면에서 보다 높게 평가한 사람은 洪大容이었다. 홍대용은 어릴 때부터 거문고 연주를 즐겨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중국 악기인 唐琴(七絃琴)과 洋琴에도 관심을 갖고 그 연주법을 익혔으며, 笙簧도 곧잘 연주하였다. 홍대용은 조선의 악기뿐 아니라 중국 악기 연주에도 깊은

53)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5월 13일 갑오; 1769년 5월 17일 무술.
54) 이한진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조지형, 「京山 李漢鎭의 생애와 문예 활동」, 『대동문화연구』 제71집, 대동문화연구원, 2010; 김태균, 「李漢鎭 編 『靑丘永言』의 특성 탐색」, 『語文硏究』 제4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55) 成海應, 「世好錄」, 『硏經齋全集』 권49.
56) 成海應, 「題丹室閔公玉簫詩後」, 『硏經齋全集』 권18 文2.
57) 洪大容, 「會友錄序」, 『湛軒書』 外集 권1; 成海應, 「先府君行狀」, 『硏經齋全集』 권10.

관심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그는 음악 이론도 연구하여 기본음인 黃鍾의 척도가 되는 律管의 제작법 등 음악에 관련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58] 김용겸은 뒤에 장악원 제조가 되었을 때 홍대용을 추천하여 함께 樂律을 정비하려는 뜻을 품기도 하였다.[59]

金櫃(1724-1776)은 당대의 거문고 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홍대용과 함께 중국에서 새로 들여온 양금의 연주법을 연구하여 전파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는 호가 風舞子였는데, 이 호를 지어준 사람이 김용겸이었다.

김용겸이 홍대용·김억과 함께 어울린 사람이 박지원이다. 박지원은 연주자로 이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音感이 뛰어났고, 김용겸은 '운치있는 일'이 있으면 늘 홍대용과 박지원을 불러 함께 하였다고 한다.[60] 이들과 함께 어울린 서상수 역시 악률에 밝아 정조 3년(1779) 장악원 제조 宋德相이 장악원의 관료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김용겸이 음악과 풍류를 매개로 교유한 인물들의 중심에는 이른바 연암그룹이 있었다. 이들의 모임에는 늘 음악과 풍류가 따랐는데, 김용겸은 노년의 좌장이자 음률을 이해하는 뛰어난 청중으로서 모임의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김용겸에게는 이외에도 음악을 매개로 교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李彦默(?-1771)이다. 이언묵은 종실인 密陽君의 아들이자 이서구의 작은 할아버지로 어린 시절 그를 가르친 인물이기도 하다.[61] 그는 특이하게도 직접 중국식 琴을 제작하고 중국의 琴譜를 토대로 음률을 연구하였다. 중국 악기의 연주법을 익혔다는 점에서는 홍대용과 유사하지만 악보를 토대로 중국 음악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음률 연구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겸은 그의 琴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그가 장악원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62] 김용겸은 개인적으로 음악을

58) 송혜진, 「조선 후기 중국 악기의 수용과 正樂문화의 성격」, 『동양예술』 제5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2; 손태룡, 「담헌 홍대용의 음악사상」, 『한국음악사학보』 제1집, 한국음악사학회, 1988, 49-53면.
59)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7월 29일 신해.
60) 박종채 지음, 앞의 책, 36면.
61) 李書九, 「年譜」, 『惕齋集』.
62)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5월 13일 갑오.

즐기기도 하였지만 장악원 관료로서 음악이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용겸은 이언묵이 제작한 唐琴을 빌려 직접 琴譜를 익혔는데, 그중에는 원대 周德淸이 편찬한 『中原音韻』, 명말 汪善吾가 편찬한 『樂仙琴譜』(1623), 청대 程雄이 편찬한 『松風閣琴譜』(1677)와 潘士權이 편찬한 『大樂元音』(1745) 등이 있었다.[63] 김용겸이 이 악보들을 연구한 것도 연주법보다는 음률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64]

황윤석도 음악이론 면에서 김용겸과 뜻이 맞은 인물이다. 황윤석은 일찍부터 『性理大全』에 실린 蔡元定의 『律呂新書』를 깊이 연구하여 음악 이론에 일가견을 갖고 있었다. 황윤석과 처음 만났을 당시 장악원 정으로 있던 김용겸은 음악에 관련하여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黃鍾이 宮이 되면 林鍾은 어떤 소리가 되는가?"하는 음률에 대한 것이었는데, 황윤석이 『율려신서』에 근거하여 답하자 청대 강희제의 명으로 편찬한 『律呂正義』를 들어 "『율려정의』의 논설을 『율려신서』와 비교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악기의 바른 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결국 악기 제작의 척도가 되는 律管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65] 김용겸은 古制에 기초하여 바른 음을 찾고 이에 맞추어 악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그 관심은 당시 조선에 새로 유입된 『율려정의』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김용겸은 황윤석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후 조선 음악의 기초가 되는 『樂學軌範』과 서양의 음악 이론을 수용한 강희제 칙령 편찬의 『律呂正義』, 청대 張安茂의 『頖宮禮樂全書』, 자신이 보고 있던 명청대의 중국 금보를 함께 검토하게 하였다.[66] 김용겸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음률과 음악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國家典禮樂의 樂律과 악기를 정비하는 데에 있었다.

정조 3년(1779) 장악원 제조로 있을 때 음률 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명을 받은 김용겸은 홍대용과 황윤석을 추천하고자 하였다. 김용겸은 홍대용이 雅樂인 아닌 俗樂에 능통하다고 평가하고 황윤석에게 자신과 함께 일할

63)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8월 초9일 무오.
64)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4월 22일 병자.
65)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5월 13일 갑오.
66)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5월 13일 갑오.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67] 그는 음악이론가로서 황윤석의 자질을 높이 샀고 그 재능을 국가전례악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용겸은 당시의 音이 古制와 달라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으며, 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음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악기를 개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장악원 제조로 있던 정조 2년(1778) 11월 정조가 장악원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 입시하였을 때도 김용겸은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68] 김용겸이 여러 차례 장악원 정을 지내고 정조대에 장악원 제조로 발탁된 것은 취미 수준의 연주나 애호를 넘어 음악이론과 국가전례악에 대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김용겸은 78세 때 歌曲歌詞集, 곧 時調集을 편찬하려고 하였다. 편자를 알 수 없는 『東俗五章歌詞』라는 책을 손에 넣었고, 이를 첨삭하여 별도의 책을 만들려고 하였다.[69] 황윤석을 만난 자리에서 김용겸은 宋純, 李珥, 鄭澈, 郭始徵의 가사에 대해 언급하고, 조선어로 된 가사가 외국까지 전할 만하지만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 맛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이즈음 김용겸은 시조에 깊이 빠져 있었던 듯하다.

김용겸이 자신의 가곡집을 완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주변에 있던 홍대용은 『大東風謠』, 이한진은 『靑丘永言』이라는 시조집을 엮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음악에 뜻을 둔 세 사람은 歌曲에 대한 관심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70]

김용겸은 개인적으로 음악을 즐기고 연주자나 음악 애호가들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겼고, 풍류로 장안의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음악적 관심은 풍류를 넘어 음율 이론에 대한 연구와 국가전례악의 정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이는 그의 음악 이론가,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

67)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7월 29일 신해.
68)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1월 29일 을묘.
69)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6월 14일 병인.
70) 이한진이 엮은 『靑丘永言』에는 김용겸이 지었다는 시조 한 수가 실려 있다. 이 시조는 당나라 許渾의 칠언절구 「峴山廟」를 번안한 것이다. 李漢鎭 편, 『靑丘永言』. "王子求仙月滿臺ᄒᆞ니 玉簫淸轉 鶴徘徊라 / 曲調 ᄆᆞᆺ츤 후의 간 곳들 不知ᄒᆞ니 / 山下의 碧桃만이ᄉᆞ 春自開를 ᄒᆞ더라 / 右嘐嘐齋先生所製"

3) 책과 박학의 세계

조상각 8영에서 장동, 거문고와 함께 제재가 된 것이 책이다. 김용겸은 載籍全書라는 이름으로 소장한 책의 목록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스스로 집에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71] 또 안 본 책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고, 일찍부터 博學하다는 평을 들었다.[72]

영조 45년(1769) 3월 황윤석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김용겸은 자신의 독서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나는 평소에 책을 즐기는데, 經籍 외에 字學과 韻學에 관계된 것은 최세진의 『四聲通解』와 동한 허신의 『說文解字』, 律曆에 관련된 것은 『宋史』「律曆志」와 청 임금 강희가 편찬한 『律曆源流』 근 100권, 算學에 관계된 것은 명나라 사람의 『算學統宗』과 『詳明算法』, 서양인의 『幾何原本』과 강희제 때 편찬한 『儀象志』, 이상 각종 서적을 안 본 것이 없다.[73]

위에서 김용겸은 특히 자학・운학・율력・산학 관련 독서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분야가 김용겸이 당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였을 것이다. 이 분야들은 좁게는 음악과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고 넓게는 象數學이라는 견지에서 종합되는 분야들이기도 하다.[74] 분명한 것은 김용겸의 관심 범위는 전통적인 義理之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김용겸의 관심 분야가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영조 45년 3월

---

71)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4월 13일 계묘; 1778년 11월 초3일 기축.

72) 李圭象 지음,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25-26면;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8월 8일.

73)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3월 23일 병오. "又言, 吾平日嗜書, 自經籍以外, 如係字學韻學, 則崔世珍四聲通解及東漢許愼說文, 如係律曆, 則宋史律曆志及康熙淸主所編律曆源流近百卷, 如係算數, 則明人之算學統宗及詳明算法西洋人幾何原本, 又有康熙時所撰儀象志, 以上各種書冊, 無不過眼."

74) 조선후기 상수학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조성산, 「17세기 후반 경기지역 西人 象數學風의 형성과 의미」, 『한국사연구』 제115집, 한국사연구회, 2001, 108-110면; 박권수, 「조선후기 象數學의 발전과 변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6-9면.

김용겸과 황윤석이 나눈 대화에는 넓게 고금의 일부터 易範·律曆·田兵·官職·算數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김용겸은 자신과 황윤석의 학문 경향을 '好古博觀'으로 표현하였다.[75] 그들의 학문은 고전에 대한 탐구를 주로하며, 박학은 그 방법론이었다.

전라도 흥덕 출신이었던 황윤석이 서울에서 벼슬살이 한 기간은 4년 남짓에 불과하였다. 그 사이에 김용겸은 황윤석에게 이런저런 책들을 빌려주었다. 간혹 황윤석이 먼저 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김용겸이 먼저 소개하고 빌려주기를 자청하였다. 이외에도 황윤석은 김용겸의 집을 방문하여 김용겸이 즐기는 책들도 보았다. 『이재난고』에서 황윤석이 김용겸에게 빌렸거나 드물지만 황윤석이 빌려준 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들은 황윤석이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책들로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즐겨보던 책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김용겸의 독서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이재난고』 서적 대출 기록

번호	언급 날짜	서명	저자	대출 날짜	반납 날짜	비고
1	1769년 3월 16일 기해	氏族源流 7책	趙涑·趙仲耘	1769년 3월 16일 기해	1769년 3월 22일 을사	
2	1769년 3월 23일 병오	四聲通解	崔世珍	1769년 3월 23일 병오	1769년 5월 3일 갑신	
3	1769년 3월 26일 기유	律曆淵源 (律呂正義)	청 康熙帝 命撰	1769년 5월 3일 갑신		책주 金善行
4	1769년 5월 13일 갑오	樂學軌範	成俔 등	1769년 5월 17일 무술		*장악원 목판 인출
5	〃	頖宮禮樂全書 16권	청 張安茂	1769년 6월 9일 기미	1770년 2월 25일 임신	
6	1769년 5월 17일 무술	通文館志	金指南	1769년 8월 9일 무오	1769년 8월 14일 계해	
7	1769년 6월 17일 정묘	宣和博古圖 2갑 15권	북송 徽宗 명찬	1770년 2월 5일 임자	1770년 2월 25일 임신	
8	1769년 6월 19일 기사	東儒師友錄	朴世采	1769년 9월 23일 임인		
9	〃	律曆淵源 (曆象考成)	청 康熙帝 命撰	1769년 8월 17일 병인	1769년 9월 5일 갑신	책주 김선행
10	1769년 11월 4일 임오	三淵集	金昌翕	1769년 11월 4일 임오	1769년 11월 12일 경인	*황윤석이 먼저 청함

75)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7월 22일 임인.

11	1769년 11월 14일 임진	樂仙琴譜	명 汪善吾	1769년 12월 5일 계축	1770년 2월 25일 임신	
12	〃	松風閣琴譜	청 程雄	1769년 12월 5일 계축	1770년 2월 25일 임신	
13	〃	龍飛御天歌	鄭麟趾 등	1769년 11월 17일 을미	1769년 12월 2일 경술	
14	〃	周易折中	청 李光地	1770년 6월 26일 경자	1771년 10월 20일 정해	
15	1769년 11월 17일 을미	大明一統志	명 李賢 등	1769년 11월 17일 을미	1769년 12월 2일 경술	
16	〃	大明會典	명	1770년 2월 5일 임자	1770년 윤5월 28일 계유	
17	1770년 2월 25일 임신	農政全書	명 徐光啟		1770년 5월 6일 임오	
18	〃	演機新編	安命老	1770년 6월 26일 경자	1770년 11월 6일 무신	
19	1770년 8월 21일 갑오	乾隆丁亥春季爵秩全覽 4책		1770년 8월 21일 갑오		
20	1770년 7월 22일 병인	經世八編類纂	명 陳仁錫	1770년 10월 22일 갑오	1770년 12월 13일 을유	*김용겸이 빌려감 *鄭景淳 소장본
21	1771년 2월 2일 계유	大谷子易圖 (『易學圖說』 首卷)	金錫文	1771년 2월 4일 을해	1771년 2월 18일 기축	김용겸이 빌려감
22	〃	淸曆 5-6권		1771년 2월 18일 기축		
23	1771년 3월 27일 무진	洪武正韻	명 宋濂 등	1771년 3월 27일 무진	1771년 3월 29일 경오	
24	1771년 3월 29일 경오	袁中郎集	명 袁宏道		1771년 6월 7일 병자	
25	1771년 4월 27일 정유	四聲通解	최세진	1771년 4월 27일 정유	1771년 6월 7일 병자	*김용겸 가장본
26	〃	四聲通解	최세진	1771년 5월 17일 정사	1771년 6월 7일 병자	*洪啓禧 소장본
27	1771년 7월 11일 기유	理宗傳 2갑 10책	미상		1771년 7월 11일 기유	
28	〃	崔祐泉門俟天錄			1771년 7월 11일 기유	*김용겸이 필사해 줌
29	1778년 4월 20일 경술	國家禪祔儀注			1778년 4월 20일 경술	
30	1778년 6월 1일 기축	大典續典 [典錄通考, 續大典]		1778년 6월 1일 기축		
31	1778년 5월 12일 신미	淸人一統志 蒙古・朝鮮 부분	청 陳德華 등	1778년 6월 7일 을미		
32	1778년 7월 9일 병신	柳下集	洪世泰	1778년 8월 11일 무신	1778년 8월 22일 기묘	
33	1779년 4월 22일 병자	朱子大全 遺集 1책, 附錄 6책	洪啓禧 간	1779년 4월 22일 병자	1779년 6월 13일 을축	

34	〃	樂仙琴譜正音 2책	명 汪善吾	1779년 4월 22일 병자	1779년 6월 13일 을축	
35	〃	松風閣琴譜 및 抒懷操 2책	청 程子雲	1779년 4월 22일 병자	1779년 6월 13일 을축	
36	〃	大樂元音 5책	청 潘士權	1779년 4월 22일 병자	1779년 6월 13일 을축	
37	1779년 6월 (23일)	廣金石韻府 6책	청 林尙蔡	1779년 6월 26일 무인	1779년 7월 15일 정유	
38	〃	說文正字通	청 張自烈・寥文英	1779년 6월 26일 무인	1779년 7월 15일 정유	
39	〃	篆海心鏡	金振興	1779년 7월 15일 정유		*김용겸이 선물함
40	〃	天默集	청 吳偉業	1779년 6월 (23일)	1779년 7월 20일 임인	*김용겸이 빌려감
41	1779년 7월 21일 계묘	易學圖解	김석문	1779년 7월 24일 병오		
42	〃	朱之蕃篆訣	김진흥	1779년 7월 29일 신해	1779년 8월 15일 병인	
43	1786년 6월 4일 병자	涇陽遺書	명 顧憲成	×		*책을 찾지 못함
44	〃	讀禮新書 [讀禮通考]	청 徐乾學	×		*글씨가 작아 빌리기를 포기함

위에서 확인되는 책들을 보면 유학서에서부터 악학서, 자학서, 운서, 문집, 역학, 예학, 지리지, 농서, 보학, 병서, 박물지, 중국의 官案, 曆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두 사람이 박학으로 자부했던 만큼 독서 분야도 다양하게 퍼져 있다.

물론 이 책들이 모두 김용겸이 소장한 책은 아니었다. 『율력연원』은 족질 김선행에게, 『四聲通解』 古本은 홍계희에게 빌린 것이었다. 또 김용겸은 조영석 부자가 『詩經』에 나오는 각종 식물, 동물, 복식, 용기 등을 그린 『詩經草木鳥獸服飾器用名物圖像』(일명: 多識者)을 보여주었는데, 이 책은 홍계희의 아들 洪念海에게 빌린 것이었다.[76] 김용겸은 자신이 많은 책을 소장하기도 하였지만 넓은 인맥을 이용하여 도성 내에서 다양한 책을 빌려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이 책들의 목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당시 국내에서는 널리 유통되지

76) 황윤석, 『이재난고』 1772년 9월 20일 임자.

않은 명청대 중국본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율려정의』와 『역상고성』은 당시 국내에 3질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전하며, 명말 徐光啓가 편찬한 『農政全書』, 강희제 때 李光地 등이 편찬한 『周易折中』, 徐乾學의 『讀禮通考』, 명말 茅元儀의 『武備志』 등도 사행을 통해 소수만이 유입된 책으로 조선에서는 상당히 귀한 책이었다. 또 김용겸은 『乾隆丁亥(1767)春季爵秩全覽』과 같은 중국의 官案과 淸曆도 여러 건을 소장하고 있었다. 영조 8년(1732) 김용겸은 북경에 사행을 간 李宜顯의 통해 『奎璧小學』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77] 이후에도 사행들을 통해 책을 지속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야 면에서는 우선 음악에 관한 책들이 다수 보인다. 그 범위는 조선 악제의 기초가 되는 『악학궤범』에서부터 『율려정의』와 같은 이론서, 청대 태학 예악의 전집인 『頖宮禮樂全書』, 중국 금보인 『악선금보』와 『송풍각금보』 등에 이른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악률 이론에 대한 김용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韻書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김용겸은 스스로 관심 분야의 하나로 韻學을 꼽았고, 특히 崔世珍의 『四聲通解』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김용겸은 이 책에 반영된 소리가 正音에 가깝다고 인식하였고, 황윤석이 강희제 때 편찬한 『율려정의』를 토대로 이 책을 연구하여 正音을 복원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78] 김용겸이 황윤석에게 제시한 과업은 김용겸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과업이기도 하였다. 김용겸이 원대 周德淸이 북방지역 雜劇인 北曲의 창작 기법과 가창 기법을 종합한 운서 『中原音韻』에 관심을 보인 것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홍계희가 『三韻通考』를 편찬하고 『洪武正韻』 간행을 주청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용겸은 나아가 사역원의 책을 빌려 중국어뿐 아니라 만주어, 몽고어, 일본어를 대강이라도 배워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다.[79] 그런데, 『過庭錄』의 기록에 따르면 김용겸은 음악 연주에 맞추어 『詩經』을 중국어로 읊었다고 한

77) 李宜顯, 「壬子燕行雜識」(1732), 『陶谷集』 권30.
78)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4월 24일 병자; 1769년 5월 초4일 을유.
79)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5월 13일 갑오.

다. 이때의 중국어는 당대의 중국어라기보다는 운서를 통해 익힌 음일 것이다.

아울러 두 사람이 함께 본 책 중에는 字學 서적도 여러 종류가 등장한다. 김용겸은 스스로 한대 許愼이 지은 『說文解字』를 애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황윤석은 김용겸의 집에서 『漢隸分韻』, 『漢隸字彙』, 許愼의 『說文解字』, 『篆海』 등을 함께 보았는데, 이 책들은 漢代의 隸書에 관한 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80] 그 후 황윤석은 명말 張自烈이 편찬한 『正字通』, 金振興의 『篆訣』[篆大學?], 청대 林尙葵・李根이 편찬한 『廣金石韻府』, 김진흥이 편찬한 『篆海心鏡』 등도 빌려 보았다. 김용겸은 중국의 자학 서적과 김진흥의 책을 탐독하고 있었던 것이다. 字學은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등이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였다.[81]

자학에 대한 관심은 글씨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다. 김용겸과 절친했던 이한진은 퉁소 연주자로도 유명하였으나 尹東暹에게 隸書[八分體]를 배우고, 李麟祥에게 篆書를 배운 당대의 명필이기도 하였다.[82] 그는 경중의 사대부들을 위해 많은 글씨를 써 주기도 하였으며, 박지원, 성대중, 이덕무 등도 그의 필법을 유희의 하나로 삼아 즐겼다.[83] 김용겸도 예서와 전서를 즐겨 조상각 8영첩을 만들 때 심유진과 홍대용은 특별히 篆書로 시를 써서 바쳤다.[84]

황윤석은 이한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김용겸의 소개로 『악학궤범』을 인출하면서 이한진에게 題籤을 받았고, 아울러 자신과 김용겸의 좌우명을 예서로 써서 받기도 하였다.[85] 또 김용겸은 역시 당대의 명필로 이름이 났던 黃運祚와도 교유하고 있었다.[86]

한편 영조 45년(1769) 6월 황윤석은 김용겸에게 『博古圖』를 빌려 달라고 청했는데, 그 며칠 전 김용겸의 집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집의

---

80)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6월 초9일 기미.
81) 양원석, 「朝鮮 後期 학자들의 文字學에 대한 인식 및 『說文解字注』 수용 양상」,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10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0년 10월 16일.
82)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7월 초9일 병신; 成大中, 「送李仲雲盡室入洞陰序」, 『靑城集』 권5.
83) 成大中, 「送燕巖之官襄陽序」, 『靑城集』 권6; 成大中, 「祕書贊屛記」, 『靑城集』 권7; 李德懋,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 『靑莊館全書』 권71 부록.
84)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7월 초9일 병신.
85)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6월 12일 임술; 1769년 6월 19일 기사; 1769년 6월 25일 을해; 1769년 7월 초6일 병술; 黃胤錫, 「答李公孝【思永】書」, 『頤齋遺藁』 권9.
86) 황윤석, 『이재난고』 1771년 3월 24일 을축.

벽에는 李明郁의 「漁樵問答圖」와 鄭敾의 「弼雲臺」 그림이 붙어 있었으며, 김용겸이 소장한 鐵笛과 「石鼓文」의 印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87] 李圭象과 成海應은 김용겸이 책과 함께 다수의 金石古器들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전한다.[88] 고동서화 역시 김용겸이 즐기는 취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박학으로 뜻이 맞은 두 사람이었던 만큼 그들이 함께 본 책도 다종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 탐구 분야를 넓혀 가는 면모도 보인다. 예를 들어 김용겸은 황윤석이 兵書를 즐기지 않는 것을 결점이라고 여기고 특별히 명말 茅元儀가 편찬한 『武備志』와 조선의 安命老(1620-?)가 지은 『演機新編』을 빌려주었다.[89] 황윤석은 두 책을 비교하며 「題安氏演機新編」이라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90]

반면 황윤석은 律曆과 算學 쪽에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金錫文의 『易學圖解』를 높이 평가하였다.[91] 이로 인해 김용겸은 황윤석와 함께 『大谷子易圖』를 검토하고 『역학도해』 일부를 빌려 봤으며, 뒤에는 성대중이 소장한 『역학도해』 전질을 빌려 황윤석과 함께 검토하였다.[92] 같은 책을 보고 그 내용을 함께 강론하는 것이 두 사람이 즐기는 교유 방식이었다.

책을 둘러싼 교유가 황윤석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현종 8년(1667) 명 유민을 자처한 林寅觀 등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다가 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이서구는 그 기록을 모아 『丁未傳信錄』이라고 이름하였고, 성해응은 다른 자료들을 모아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의 당초 이름은 『飄簪錄』이었고, 그 이름을 정한 것은 김용겸이었다.[93] 이덕무는 이 『표잠록』을 읽고 비분강개한 마음을 김용겸에게 편지로 전했다.[94]

---

87)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6월 13일 계해.
88) 李圭象 지음, 앞의 책, 26면; 成海應, 「世好錄」, 『研經齋全集』 권49.
89) 황윤석, 『이재난고』 1770년 4월 23일 경오.
90) 황윤석, 『이재난고』 1770년 6월 26일 경자; 1770년 6월 13일 정사; 1771년 3월 23일 갑자; 황윤석, 「題安氏演機新編」, 『頤齋遺藁』 권12.
91)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8월 16일.
92) 구만옥, 앞의 글.
93) 成海應, 「丁未傳信錄」, 『研經齋全集』 外集 권3.
94) 李德懋, 「金嘐嘐齋【用謙】書」, 『雅正遺稿』 권7.

이 기록의 전사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김용겸, 이서구, 이덕무가 그 책을 함께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대중은 김용겸이 이맹휴가 편찬한 『春官志』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조에서 그 책을 빌려 安龍福傳을 읽은 후 안용복에 대한 글을 지었다.[95]

이덕무는 영조 51년(1775)에 『士小節』을 완성하였는데, 이 책에서 김용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嘐嘐齋 金公은 머리가 하얀 노경에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총민한 소년을 만나면 반드시 쌓인 서책을 흔연히 펼치고 옛사람의 아름다운 일과 좋은 말을 찾아내서 읊조리고 강론하며 끈덕지고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나는 찾아가 뵐 때마다 소득이 많았으니, 農巖·三淵의 遺風을 볼 수 있었다.[96]

이덕무의 눈에 비친 김용겸은 70대의 노년에도 젊은이들을 만나 책을 펼쳐놓고 끈질기게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이러한 장면은 황윤석의 『이재난고』에서도 자주 보이는 장면이다. 김용겸은 황윤석을 만날 때마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책을 빌려주었다. 또 성대중은 김용겸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지은 시에서 "백수에도 문헌의 뒤를 쫓더니 墓門에서 조문하는 자들이 거의 다 門生이구나[白首猥追文獻後, 墓門相弔幾門生.]"라고 언급하였다.[97] 김용겸과 청년들은 바로 책을 매개로 교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용겸은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만나 책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황윤석을 처음 만났던 영조 45년 당시에는 이런 취미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홍계희뿐이라고 언급하였다.[98] 博學은 당시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취향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랐다. 그의 주변에는 박학 취향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

95) 成大中, 「醒言」, 『靑城雜記』 권3.
96) 李德懋, 「士典」, 『靑莊館全書』 권28 士小節[中]. "嘐嘐齋金公, 老白首, 好學不倦, 每逢聰敏年少, 必欣然手撿積書, 窮尋古人美事旨言, 諷咏講論, 娓娓不厭, 申申不已. 予每一謁, 虛往實歸, 農巖三淵遺風, 可挹."
97) 成大中, 「疊和盤溪 會下嘐嘐齋」, 『靑城集』 권3.
98)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3월 23일 병오.

젊은이들은 김용겸을 통해 교유관계를 확대해 가기도 하였다. 김용겸은 황윤석에게 의영고 근처에 살던 沈有鎭을 소개해 주었다. 글을 잘하고 박식하여 이야기를 나눌만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후 황윤석은 심유진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심유진은 算學에 관심이 많은 친구 李顯直을 소개해 주었고, 이현직은 李思問, 趙學良을 소개하였다.[99]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이 서로를 소개하면서 그 관계가 점점 확대되고 서로 얽히게 된 것이다.

황윤석은 영조 47년(1771) 벼슬이 떨어져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정조 즉위년(1776) 8월 영조의 장례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상경하였다. 이때 曆學으로 이름난 홍대용과 典故에 밝은 李萬運을 방문하였다.[100] 그들의 명성을 익히 듣고 관심을 가져 왔던 터에 직접 만나보고자 한 것이다. 그 후 황윤석은 두 사람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는데, 특히 정조 2년(1778) 2월 사복시 주부가 되어 다시 상경한 후에는 이만운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만운은 이덕무가 지은 「紀年兒覽序文」을 들고 왔고, 얼마 후 북경에서 돌아온 이덕무를 데리고 황윤석을 찾아 왔다.[101] 이때부터 황윤석은 이덕무와도 깊은 교유를 이어 갔다. 그런데, 이덕무에게 이만운을 소개한 사람은 김용겸이었다. 이덕무가 國朝典章, 즉 조선의 역사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자 이만운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덕무는 이만운이 지은 『기념아람』을 증보하게 되었다.[102]

박지원이 쓴 이덕무의 행장에는 그가 수만 권의 책을 읽었고, 책을 읽고 초록한 것이 수백 권이었으며, 특별한 말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기록해 두었고,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는 박학자였다고 적고 있다.[103] 이 모습은 『이재난고』를 통해 확인되는 황윤석의 독서 이력이나 기록벽과 유사하다.[104]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별다른 인연이 없을 듯한 두 사

99) 박현순, 앞의 글, 327면.
100) 황윤석, 『이재난고』 1776년 8월 초5일 갑신; 1776년 8월 초8일 정미.
101)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6월 21일 기묘; 1778년 11월 26일 임자.
102) 李德懋, 「紀年兒覽序」, 『靑莊館全書』 권25.
103) 朴趾源, 「炯菴行狀」, 『燕巖集』 권3 孔雀舘文稿.
104) 이지양, 「黃胤錫의 書籍筆寫 및 購入으로 본 京鄕 간의 知識動向—1768년-1771년까지의 한양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람이 오랜 기간 교유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황윤석은 정조 즉위년(1776) 홍대용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머물고 있던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와 이틀을 함께 묵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박제가는 자신의 교유를 기록한 聯詩에 황윤석의 이름을 올리고 韻學과 算學에 밝은 인물로 묘사하였다.[105] 그러나 홍대용·이덕무와 달리 박지원이나 박제가는 황윤석과 별다른 교유가 없었다. 황윤석의 입장에서 보면 홍대용은 역학, 이덕무는 典故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황윤석이 보기에 이덕무와 가장 절친한 인물은 이만운이었다. 그들의 교유는 각자 관심사를 따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황윤석이 한양에서 교유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 김용겸과 교유한 인물들과 겹쳤다. 하지만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대별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박학이라는 공통의 취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관계는 얽혀 있었다. 그 가운데 김용겸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4) 道學·禮學과 經世學의 세계

김용겸이 속한 풍류·음악의 세계는 박학의 세계와도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교유망에서 동떨어져 있었지만 역시 김용겸과 깊게 교유한 인물이 있었다. 정통성리학자이자 예학자로 일가를 이룬 近齋 朴胤源이 그이다. 박윤원은 외조모 김씨가 김창협의 딸로 김용겸과는 4촌지간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어려서부터 김용겸과 알고 지냈으나 본격적으로 그를 찾아 공부한 것은 장성한 이후의 일이다. 그 역시 조상각 8영 시를 남기고 있어서 정조 2년(1778) 무렵 김용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윤원은 김원행의 문하에 수학하였고, 노론 낙론의 학풍을 계승하였다.[106] 하지만 스스로

105) 朴齊家, 「戱倣王漁洋歲暮懷人」, 『貞蕤閣集』 初集.

106) 박윤원의 학문적 연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윤정, 「18세기 京華士族의 禮學—近齋 朴胤源의 『近齋禮說』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제82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김용겸이 후생 가운데 자신을 가장 아꼈고, 실제로 자신을 가르친 것은 김용겸이라고 언급할 만큼 김용겸과도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김용겸의 遺事를 짓기도 하였다.[107] 김원행과 사제관계를 맺고 김용겸과 가깝게 지냈다는 점에서 보면 박윤원은 홍대용・황윤석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교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박윤원은 두 사람과 같은 시기에 김용겸과 교유하고 있었지만 그가 기록한 김용겸의 모습은 좀 달랐다. 박윤원은 김용겸의 독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은 학술이 博洽하여 보지 않은 책이 없었으나 禮書를 가장 좋아하였다. 젊었을 때 『儀禮經傳通解』를 읽고 小註까지 모두 외웠다. 經世에 뜻을 두고 유형원의 『磻溪隨錄』을 사랑하여 직접 베껴서 보았다.
>
> 공은 진덕수의 『心經』을 아주 좋아하여, '이 책은 淸心丸이다'고 하였다.
>
> 공이 공조 참판이 되었다. 이때 『공조지』를 편찬하느라 其人의 都家에서 묵었다. 10여 일 머물렀는데, 『聖學輯要』를 가지고 가서 아침저녁으로 펼쳐보았다. 이르기를 '나는 이 책을 하루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108]

박윤원도 김용겸이 박학하고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윤원의 눈에 비친 김용겸은 풍류객이나 박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禮學에 밝고 道學과 古禮를 몸소 구현하며 경세에 뜻을 둔 선비였다. 예학자・도학자・경세가의 면모 역시 김용겸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김용겸은 예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109] 전통적인 학문관의 견지에서는 그의 예학이 가장 주목받았던 셈이다.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김용겸은 家學인 노론 낙론계의 학풍을 충실히 계승

---

107) 朴胤源, 「祭嘐嘐齋金公文」, 『近齋集』 권27.
108)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公學術博洽, 於書無所不覽, 最好禮書. 少日讀儀禮通解幷小註誦之. 又留心經濟, 愛柳磻溪隨錄, 手寫以觀. (…) 公最愛眞西山心經, 曰此淸心丸也. (…) 公爲工部亞堂. 時爲編摩冬官典憲, 舘于其人都家, 留十餘日. 以聖學輯要自隨, 朝夕披閱曰 吾於此書, 未嘗一日釋也."
109)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6월 6일 을사; 권27 정조 13년 2월 9일 병신.

하였다. 영조 45년(1769) 華陽書院 廟庭碑 문제로 낙론과 호론 간에 시비가 붙었을 때 김용겸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김용겸은 李柬과 玄尙璧, 金昌協의 논의를 근거로 호론을 대표하는 韓元震과 尹鳳九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뒤에 황윤석은 「記湖洛二學始末」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논의의 상당 부분은 김용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110]

김용겸이 보다 두각을 드러낸 부분은 禮學이었다. 김용겸은 스스로 젊어서부터 禮書에 癖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특히 『儀禮經傳通解』에 뜻을 두었고 정조가 예서의 독서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의례경전통해』를 먼저 읽으라고 추천하였다.[111] 그의 예학은 『儀禮經傳通解』에 기초하고 있었다.

『의례경전통해』는 주희가 『儀禮』를 經으로 『禮記』를 傳으로 삼고, 여러 경전과 각종 서적에서 각 禮文에 관련된 기록들을 뽑아 정리한 책이다. 그 내용은 家禮, 鄕禮, 學禮, 邦國禮, 王朝禮, 葬禮, 祭禮 등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조선의 예학이 주희의 『家禮』에 바탕하여 사대부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이 책은 향례, 학례, 제후례, 천자례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112] 『의례경전통해』에 기초한 김용겸의 예학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 김매순은 김용겸의 예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상하 수천년의 文苑·藝圃·理藪·談叢을 읽고 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으나 특히 禮에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하였다. 『의례경전통해』는 小註까지 거의 다 외었으며, 집안의 관혼상제와 나라의 朝聘師田, 복잡한 雜服과 邊豆, 정교한 鍾律·聲容까지 온갖 것들을 다 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답하였다. 전문임을 자랑하는 宿儒나 强記로 자처하는 후생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물러나 담장에 기대어 스스로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없었다.[113]

---

110) 황윤석, 『이재난고』 1770년 6월 18일 임신; 1778년 7월 27일 갑인.

111)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6일 을사.

112) 박미라, 「『儀禮經傳通解』의 체제에 나타난 朱子의 禮學思想」,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 정경희, 「朱子禮學의 변화와 《儀禮經傳通解》」, 『진단학보』 제86집, 진단학회, 1998.

113)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上下數千年文苑藝圃理藪談叢, 手觸目擊, 殆無餘遺, 而潛心肆力, 尤在於禮, 儀禮經傳通解, 並小註, 畧能背誦, 家而冠昏喪祭, 國而朝聘師田, 雜服籩豆之繁賾, 鍾律聲容之微奧, 森羅總會, 有叩斯應, 雖宿儒之普詡專門, 後生之自命强記者, 一聽談論, 莫不逡巡負墻, 自愧其未始學也."

김용겸의 예학은 가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례 및 각종 문물제도 전반에까지 펼쳐져 있었다. 나아가 그는 의복, 제기, 음악 등 세세한 儀物과 儀禮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예학은 名物度數之學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宋能相(1709-1758)은 조선의 예학은 『가례』와 金長生의 『疑禮問解』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儀禮經傳通解』, 杜佑의 『通典』, 당의 『開元禮』, 주희의 『家禮』 등 고금의 예설을 종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禮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현직은 이 견해가 '東國儀'를 벗어난 것이라며 감탄하였다.[114] 김용겸 역시 가례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연구 영역을 확장한 예학자였다는 점에서 조선 예학의 영역을 확장시킨 학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겸의 예학과 관련해서는 청대 徐乾學이 편찬한 『讀禮通考』 120권 40책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도 주목된다. 『독례통고』는 서건학이 喪禮에 관한 古今의 예서를 종합하여 편찬한 책으로 청초 고증학의 박학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서이다. 이 책에 인용된 도서는 600여 종인데, 이만운은 그중에서 조선에 알려진 책은 10여 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115] 그만큼 방대한 저작으로 다양한 예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책이었으며, 조선 지식인들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논의들을 제공하는 자료로 기능하였다.

이 책은 18세기 초중반 즈음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은 일찍 이 책을 접하고 있었다.[116] 김용겸이 언제부터 이 책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고, 이만운이나 황윤석 같은 주변의 인물들은 그를 통해 이 책을 접하고 있었다.[117] 김용겸이 이 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학과 박학이라는 그의 관심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윤원이 禮學으로 교유한 인물들 중에도 김용겸과 가까운 인물들이 있었다. 스승인 김원행과 그 아들인 金履安을 비롯한 안동김씨들이 대표적이다.

114) 황윤석, 『이재난고』 1770년 4월 초2일 기유.
115)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3월 16일 병자.
116) 박종천, 「朝鮮後期 『讀禮通考』의 수용과 영향」, 『한국실학연구』 제20호, 한국실학학회, 2010.
117)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3월 16일 병자; 1786년 6월 초4일 병자.

이외에 李廷仁(1734-1817)과 같은 인물도 있었다.[118] 그는 壯洞에서 김용겸과 이웃하여 살았고, 김용겸의 손자를 가르친 인물이다.[119]

이정인은 김원행의 제자로 김원행의 상 때 心喪 3년을 치러 명성을 얻었다고 하며,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원 제향이나 문집 간행 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성을 띤 인물이었다.[120] 황윤석은 김원행을 찾아가 석실서원에서 공부할 때 그와 함께 수학하기도 하였다. 그 후 황윤석은 석실서원에 金昌翕을 배향할 것을 청하는 상소의 疏廳에 갔다가 김용겸과 이정인을 함께 만났다. 김용겸과 이정인, 이정인과 황윤석의 관계는 노론 낙론계의 학통을 매개로 하는 관계였다.

김용겸은 예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저술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예학을 논할 만한 근거도 없다. 하지만 박윤원이 쓴 祭文과 遺事에는 김용겸의 예학자로서의 면모가 한껏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탓에 후학들이 쓴 박윤원의 생애에서는 김용겸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의 학문적 계승자인 趙秉德(1800-1870), 任憲晦(1811-1876)도 김용겸을 언급하고 있다. 김용겸은 박윤원을 통해 노론 낙론계의 학맥에서 그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겸은 자신의 학문적 기풍을 '好古博觀'으로 표현하였다.[121] 여기에서 "好古"는 옛것, 곧 유학과 주자학의 기본 이념으로, "博觀"은 그 정신을 규명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겸의 학문은 유가와 주자학이 제시한 기본 이념을 탐구하여 구체화하고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김용겸이 이를 실천하는 방식은 다소 파격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김용겸은 박윤원이나 그 후학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면모도 갖고 있었다.

김용겸은 당대의 사대부들 가운데는 유가와 주자의 기본 이념을 잊은 채 외양만을 흉내내는 거짓된 도학자들이 많았다고 비판하였다.[122] 이러한 인식하에 명나라 학자 邵寶의 "眞士大夫가 될지언정 거짓 道學을 하기를 원하지

118) 박윤원과 禮說로 교류한 인물들은 김윤정, 앞의 글, 116-120면 참조.
119)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8월 15일 병인.
120) 황윤석, 『이재난고』 1790년 8월 21일 기사.
121) 황윤석, 『이재난고』 1769년 7월 22일 임인.
122)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않는다[寧爲眞士大夫, 不願爲假道學.]"를 좌우명으로 삼았다.[123] 이 말은 거짓 도학을 경계한 말로 후학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박윤원은 이 말의 위험성을 경계하였다. 오용하면 "標榜"을 회피하고 "法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124]

李瀷의 해석에 따르면 眞士大夫는 "내면은 충실하나 외양이 격식을 갖추지 못한 자[內實而外荒者]", 假道學者는 "외양은 격식을 갖추었으나 내면은 텅빈 자[外飭而內虛者]"를 말한다. 이익은 속이 충실하여 외양이 갖추어지는 것이 군자의 길이며, 외양의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상태에 머물면 내외를 모두 잃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리하여 단호하게 소보의 말이 명나라의 儒風을 망쳐 놓았다고 비판하였다.[125]

김용겸은 차라리 '眞士大夫'가 될지언정 '假道學'을 해서는 안된다고 공언하였다. 당시 학자들의 허식을 경계하며 도학자연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眞道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김용겸의 개인적인 성향은 이익이 해석한 '眞士大夫'의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고, 세상의 격식을 따르지도 않았다. 박윤원이 경계한 것도 이 부분일 것이다. 실제 김용겸에 대해서는 奇行에 대한 일화들도 다수 전한다.

> 古禮를 좋아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어 옷은 『曲禮』를 본받아 다는 물건이 많았는데 움직이면 부딪혀서 소리가 요란하였다.[126]

> 공은 평소에 쓰는 관을 古制를 사용하였다. 곧 주나라의 委貌와 한나라의 進賢冠이다. 공은 늘 갓 제도를 좋아하지 않아서 '모양이 중의 屈笠같다'고 하셨다.[127]

김용겸에게 古禮와 古制는 회복해야 할 이념이자 질서였다. 그러나 이를

123) 황윤석, 「上金判官丈書」, 『이재난고』 1769년 6월 12일 임술;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124) 朴胤源, 「雜識」, 『近齋集』 권23.
125) 李瀷, 「人事門」, 『星湖僿說』 권14.
126) 李圭象 지음, 앞의 책, 25-26면.
127) 朴胤源, 「嘐嘐齋金公遺事」, 『近齋集』 권31. "公平居所戴冠用古制, 卽周之委貌・漢之進賢冠也. 公每不喜笠子之制曰, 狀類僧之屈笠."

현실에서 실천하는 모습은 파격적으로 비쳤다. 이런 탓에 김용겸은 奇人으로 인식되었으며, 전통적인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狂人으로 보는 시각도 널리 퍼져 있었던 듯하다.[128]

鄭景淳은 김용겸의 성향을 壯洞金門의 傑氣가 드러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김용겸이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다분히 파격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도학자이자 예학자이기는 하였지만 古禮에 천착하며 당대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4. 노년의 위기와 영달

김용겸은 자유분방한 풍류가이자 박학자라는 면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47세 이래 수십 년 동안 음관으로서의 삶도 이어가고 있었다. 관료로서의 삶은 무난하였다. 그러나 음관의 특성상 당상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영조 43년(1767) 9월 군자감정으로 정3품 당하관직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운 판관, 제용 판관, 장악원정, 군자감정 등을 전전하였다. 資窮의 상태에서 계속 당하관직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나이도 일흔을 넘어섰기 때문에 언제 벼슬이 끊어져도 이상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영조 48년(1772) 5월 예기치 않게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라는 왕명이 내렸다. 영조가 皇壇 望拜禮를 행하고 병자호란 충신 자손을 소견하였는데, 김용겸을 본 영조가 그를 특별히 加資하여 오위장에 제수하도록 하명한 것이다.

김용겸이 영조의 눈에 띈 것은 충신 자손이라는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가 고령이라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였다. 영조는 김용겸에게 忠臣家의 遺老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김상헌의 舊邸에서 사은하게 하며 그를 우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129] 그리고 몇 달 후 공조참의에 올랐다.

김용겸은 일흔을 넘긴 이후에도 매우 건강한 면모를 과시하였다. 여든의 고

128) 황윤석, 『이재난고』 1770년 7월 22일 병인; 1778년 6월 15일 계묘;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129)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11일 병자[을사].

령이었던 영조는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이 쇠하지 않은 김용겸이 신기하고 부러웠던 듯하다.[130] 김용겸이 오위도총관으로 근무할 때는 여든 한 살의 도총관 洪啓遠과 함께 불러 보기도 했는데, 영조의 관심사는 두 사람의 건강이었다.[131]

당상관에 오른 김용겸은 한 달 남짓씩 공조참의와 한성부 우윤을 지내며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은 한직과 체아직 사이를 오갔다. 딱히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없었다. 당상관으로 예우를 받고 있었을 뿐이다. 이 시절 김용겸은 장안의 여러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유유자적하고 있었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조는 즉위 직후 親鞫을 하면서 김용겸을 別雲劍으로 지목했고, 며칠 후 형조참판에 제수하였다. 그리고 한 달여 후인 6월 6일 김용겸을 廬次로 불러 禮에 대해 강론한 후 그를 수시로 불러 볼 수 있도록 부총관에 임명하여 궁궐 내에서 입직하도록 하였다.

정조가 김용겸에 주목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개입되어 있었다. 김용겸은 임오화변 직후에 4년여 동안 세손익위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또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신임의리를 의리의 기준으로 삼아 김창집의 후손인 장동 김문의 후예들을 예우하고자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정조는 김용겸에 호의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용겸이 관료로서 선생안과 관서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132] 예우의 차원을 넘어서서 김용겸의 개인적 자질에도 주목한 것이다.

정조는 특히 김용겸이 禮學에 조예가 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를 부총관에 임명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김용겸도 스스로 젊어서부터 禮書에 癖이 있었다고 밝히고, 『의례경전통해』를 추천하며 자신의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133] 이후에 다시 입시한 김용겸은 오륜행실을 번역하여 반포하고 경외의 학교에서 유생들이 입학할 때 『효경』과 『소학』을 강하자고 요청하였다.[134]

---

130)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6월 5일 정해; 영조 50년 6월 23일 을사.
131)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1월 17일 을축; 영조 51년 2월 12일 경인;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2월 17일 을미.
132)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5월 2일 갑술[임신].
133)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6일 을사;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6월 6일 을사.
134)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6월 21일 경신.

국왕의 부름을 받은 김용겸은 이제껏 펴보지 못한 자신의 포부를 펼쳐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김용겸은 신임의리를 지킨 김창집의 조카이자 예학에 밝은 학자로 정조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尹若淵이 洪麟漢을 비호하는 상소를 올린 일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사건은 洪相簡, 李敬彬, 閔恒烈이 함께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洪國榮을 죽이려 했다는 역모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홍상간은 홍계희의 손자이자 김용겸의 손녀사위였고, 이경빈은 李福海의 아들로 김용겸의 양자인 김적행의 처남이었다. 이 사건은 그 부형에게로까지 혐의가 확대되었다. 김용겸의 입장에서 보면 양대의 사돈이 모두 역모에 관련된 것이다. 정조는 김용겸을 체직시켰다.

이 사건으로 민항렬과 이경빈의 숙부인 李善海가 처형되었고, 홍상간은 심문 중에 사망하였으며, 홍상간의 부친 洪趾海, 숙부 洪纘海, 이경빈의 부친 이복해는 유배되었다.[135] 이 일은 이듬해 8월 홍술해의 아들 洪相範과 그 사촌인 홍염해의 아들 洪相吉이 정조 암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어, 사건에 연루된 홍계희의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홍계희는 관작을 추탈당했다.[136] 이 사건들은 『명의록』과 『속명의록』에 수록되었다. 홍계희, 홍지해, 홍술해, 홍상간은 역적의 대명사가 되었다.

홍계희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임오화변의 주역이었고, 그 아들과 손자들은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조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러한 뜻을 숨기지도 않았다. 이에 앞서 정조 즉위년 5월 충청도 유생 成泰柱 등이 전의의 雷巖書齋에 사액하여 李翔과 李縡를 합사하고, 홍계희를 配享하자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 정조는 이에 대해 홍계희를 이재의 嫡統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격분하며 소두 성태주를 귀양보내고, 趙重晦 등 이재의 문인들을 불러 이재와 홍계희의 관계를 힐문하였다. 조중회 등은 홍계희가 어려서 이재에게 배우기는 하였지만 제자로 칭하지 않았으며, 道統을

135)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3일 계유; 권1 정조 즉위년 6월 23일 임술.
136) 『정조실록』 권4 정조 1년 8월 11일 갑진; 권4 정조 1년 8월 23일 병진; 권4 정조 1년 9월 24일 병술.

논할 수도 없다고 대답하였다.[137] 이로써 홍계희는 이재의 문인이었다는 사실도 부정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김용겸의 이해는 달랐다. 김용겸은 조중회가 임금이 홍계희의 집안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同門 친구의 의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하였다.[138] 김용겸이 정조의 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홍계희에 관한 한 이재의 문인이자 동문 친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용겸은 홍계희의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이후에도 홍계희에 대한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다.

홍계희 집안에 몰아닥친 태풍이 김용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김용겸은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1월 사도세자의 탄신일에 공조참판에 特除되었다.[139] 그리고 다음 달인 2월에는 정조가 직접 나서서 金昌集을 영조의 廟廷에 配享하도록 결정하였다.[140] 의리탕평을 천명하고 신임의리를 의리의 기준으로 내세운 정조에게 김용겸은 김수항의 손자이자 김창집의 조카였고, 壯洞金門이라는 古家의 遺老로 예우의 대상이 되었다.[141]

정조 2년(1778) 10월 정조는 77세의 김용겸을 우승지에 제수하였다. 이날 김용겸을 편전으로 부른 정조는 音樂과 陵寢의 제도, 『五禮儀』, 經學, 이기심성론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치란과 명물도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이끌었다. 이 대화를 통해 정조는 김용겸이 '博而不正'하지만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를 장악원 제조에 임명하며 적임자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다. 음관이 장악원 제조가 된 일은 이때가 처음이었다.[142] 김용겸은 이제 77세의 노령에 접어들었지만 정조는 다시 한번 김용겸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

137)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 5월 26일 병신.
138)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6월 13일 을축.
139)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1월 21일 임오.
140)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2월 25일 병진.
141)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0월 30일 병술.
142)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0월 30일 병술; 정조 2년 11월 1일 정해; 정조 2년 11월 2일 무자; 황윤석, 『이재난고』 1778년 12월 초4일.

김용겸 역시 장악원 제조의 일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얼마 후 정조는 서명응과 장악원 제조인 김용겸, 이중호를 불러 악기와 악률의 현황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古制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제시하였다.[143] 김용겸은 황윤석과 홍대용을 추천하여 악기와 악률의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였다.[144]

하지만 정조 3년(1779) 6월 山林 宋德相이 장악원 제조가 되면서 다시 일이 틀어졌다. 김용겸은 송덕상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145] 김용겸은 일개 음관으로 악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사직했다.[146] 하지만 여전히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147] 결국 정조는 김용겸의 사직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용겸의 관인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마감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 후에도 몇 차례 김용겸을 불러 입시하게 하였다. 그때마다 정조는 여전히 책을 보고 있는가를 물었다.[148] 정조에게 김용겸은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는 박학한 노인이었던 것이다.

정조 10년(1786) 정조는 85세의 김용겸을 공조판서에 제수하였다. 물론 승지에 제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를 남다르게 예우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김용겸은 정조 13년(1789) 2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정조는 常例를 넘어 부의를 더하도록 하며 예우의 뜻을 보였다. '喬木世家의 노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149]

김용겸은 음관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20여 년을 당하관으로 전전하였으나 정조 즉위 후에는 70대 후반의 고령에 승지, 판서, 장악원 제조에까지 오르는 영달을 누렸다. 정조가 김용겸을 예우한 데는 그가 장동김문의 최고 어른이라는 가문적인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를 특별히 발탁하여 등

143)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1월 29일 을묘.
144)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4월 초2일 병진.
145)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7월 29일 신해;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2월 9일 병신; 金邁淳, 「族曾祖嘐嘐齋先生行狀」, 『臺山集』 권12.
146) 『승정원일기』 정조 3년 8월 2일 계축.
147) 황윤석, 『이재난고』 1779년 7월 29일 신해.
148)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월 13일 경술; 정조 7년 6월 5일 을축.
149)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0월 30일 병술; 정조 13년 2월 9일 병신.

용한 것은 그에게 남다른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가 보는 김용겸은 박학하고, 禮學에 밝았으며,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이러한 장점이 중흥주를 자처하며 고례를 모범으로 문물제도를 정비하려는 정조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정조는 박학을 자처하며 名物度數之學, 考證學에 몰두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그 유행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문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학 이해와 경세에 활용하고자 하였다.[150]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중국 도서를 수집하고 탐독하여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즉위 후 규장각 열고관에 중국본 장서를 조성하여 중국의 지적 자산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151] 이를 위해 박학계의 인적 자원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다. 이덕무와 박제가 등은 검서관에 발탁되었고, 이만운은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김용겸이 정조의 관심을 끌었던 것 역시 '好古博觀'이라는 그의 학문적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용겸을 둘러싼 박학의 네트워크는 好學君主인 정조의 조정 속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5. 맺음말

이 글은 18세기 후반 한양의 문제적 지식인들이 김용겸에 대해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김용겸의 삶과 그의 교유관계를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김용겸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역사적 좌표와 18세기 후반 한양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동향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김용겸의 삶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었다. 그는 장동김문이라는 노론 세가에서 출생하여 누대에 걸쳐 만들어진 노론 낙론계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생을 살아간 김용겸은 정통

150)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24-25면;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名物學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1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551-556면.

151) 박현순, 「정조대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 『한국문화』 제82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적인 도학자, 예학자의 면모를 갖춘 노론 낙론계의 학자였다. 아울러 노론이 정치적 주류를 차지한 18세기의 정치적 공간 속에서 어렵지 않게 벼슬살이도 이어갈 수 있었다. 비록 청년 시절 정치적 파란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용겸은 그 배경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학풍을 '假道學'이라고 규정하고 古禮에 천착하면서 博學을 통해 '眞道學'을 추구하였다. 박학은 도학을 위한 학문적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도학보다는 박학이라는 방법론이 그의 학문적 위상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김용겸은 당질인 김원행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의 주류학계와는 다른 흐름 속에 있었다.

당대의 노론 청년들은 누구나 김원행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이재나 박필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김원행은 노론을 대표하는 학자였다. 그러나 청년들은 기성학계에 피로감을 느끼고 삶과 학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바깥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흡수하여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기성의 질서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김용겸이 청년들의 이목을 끈 것도 이 지점이다. 그는 세대는 다르지만 청년들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청년들보다 앞서 '好古博觀'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게다가 長幼와 貴賤을 가리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로 젊은이들과의 학문적인 교유를 즐기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양자가 결합되며 청년들과 김용겸의 교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김용겸과 청년들 사이에는 전승해야 할 학문적인 의제도 없었고, 그 관계를 사제관계로 규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김용겸이 그 중심에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 어울리며 서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스스로의 인식을 확장해 갔을 뿐이다. 물론 한양에는 김용겸이 관계하지 않은 네트워크도 산재해 있었다. 박학을 매개로 하는 이 같은 학문적 네트워크의 존재를 18세기 후반 한양 지식인계의 주요한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정에서도 이들을 관료로 등용하여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지식의 세계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물론 전체 관료계에서 보면 그들의 존재

는 미약하였지만 그들은 각자의 장기를 통해 역할을 부여받았다. 18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조야를 막론하고 기성의 인식과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길을 탐색하고 있었다.

김용겸은 학문적인 저술은 물론 단편적인 저술도 거의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언술을 통해 그 학문적 지향이나 삶의 지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많은 후배들과 교유하며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18세기 후반의 조선사회에는 이처럼 사승관계와 무관한 학문적 관계가 존재하였고, 그 관계가 주류적 관계를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관계로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永禧殿志』, 『정조실록』.

金邁淳, 『臺山集』; 金尙憲, 『淸陰集』; 金時保, 『茅洲集』; 金信謙, 『檜巢集』; 金履安, 『三山齋集』; 金煜, 『竹下集』; 金昌緝, 『圃陰集』; 金昌翕, 『三淵集』; 南公轍, 『歸恩堂集』; 『金陵集』; 朴胤源, 『近齋集』; 朴齊家, 『貞蕤閣集』; 朴趾源, 『燕巖集』; 朴昌元, 『朴澹翁集』; 朴弼周, 『黎湖集』; 徐宗泰, 『晩靜堂集』; 成大中, 『靑城雜記』; 『靑城集』; 成海應, 『硏經齋全集』; 吳道一, 『西坡集』; 李德懋, 『雅正遺稿』; 『靑莊館全書』; 李書九, 『惕齋自述』; 『惕齋集』; 李宜顯, 『陶谷集』; 李瀷, 『星湖僿說』; 李縡, 『陶菴集』; 李載亨, 『松巖集』, 李最中, 『韋庵集』; 趙裕壽, 『后溪集』; 趙顯命, 『歸鹿集』; 崔錫鼎, 『明谷集』; 洪大容, 『湛軒書』, 洪良浩, 『耳溪集』; 黃胤錫, 『頤齋亂藁』; 『頤齋遺藁』.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과정록—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2003.

오세창 편, 『槿墨』, 성대 박물관 소장.

李圭象 지음,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구만옥, 「18세기 후반 金錫文과 『易學圖解』의 발굴—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57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1-59면.

김 경, 「李德懋의 金昌協 비평 수용 연구」, 『어문논집』 제78호, 민족어문학회, 2016, 125-155면.

김문식, 『朝鮮後期 經學思想硏究—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김수현, 「黃胤錫의 일기 『頤齋亂藁』에 언급된 樂律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8집, 한국유교학회, 2014, 441-471면.

김윤정, 「18세기 京華士族의 禮學—近齋 朴胤源의 『近齋禮說』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제82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97-140면.

김태균, 「李漢鎭 編 『靑丘永言』의 특성 탐색」, 『語文硏究』 제40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17-244면.

김형술, 「白岳詩壇의 眞詩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名物學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1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541-572면.

박권수, 「조선후기 象數學의 발전과 변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박미라, 「『儀禮經傳通解』의 체제에 나타난 朱子의 禮學思想」, 『종교와 문화』 제3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7, 217-240면.

박종천, 「朝鮮後期 『讀禮通考』의 수용과 영향」, 『한국실학연구』 제20호, 한국실학학회, 2010, 475-506면.

박현순, 「지방 지식인 黃胤錫과 京華士族의 교유」, 『한국사연구』 제163호, 한국사연구회, 2013, 299-335면.

_____, 「정조대 奎章閣 閱古館 장서의 조성」, 『한국문화』 제82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291-334면.

손태룡, 「담헌 홍대용의 음악사상」, 『한국음악사학보』 제1집, 한국음악사학회, 1988, 41-58면.
송혜진, 「조선 후기 중국 악기의 수용과 正樂문화의 성격」, 『동양예술』 제5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2, 127-142면.
양원석, 「朝鮮 後期 학자들의 文字學에 대한 인식 및 『說文解字注』 수용 양상」,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10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0년 10월 16일.
吳壽京, 「嘐嘐齋 金用謙 硏究」, 『漢文學報』 제2집, 우리한문학회, 2000, 185-221면.
_____, 『(수정증보판)연암그룹연구』, 월인, 2003.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金門 연구』, 일지사, 2007.
이지양, 「黃胤錫의 書籍筆寫 및 購入으로 본 京鄕 간의 知識動向—1768년-1771년까지의 한양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103-139면.
정경희, 「朱子禮學의 변화와 《儀禮經傳通解》」, 『진단학보』 제86집, 진단학회, 1998, 209-245면.
정호훈, 「조선후기 『花潭集』 刊行의 推移와 徐敬德 學問」, 『한국문화』 제84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43-75면.
조성산, 「17세기 후반 경기지역 西人 象數學風의 형성과 의미」, 『한국사연구』 제115집, 한국사연구회, 2001, 107-139면.
_____, 「18세기 洛論系의 『磻溪隨錄』 인식과 홍계희 경세학의 사상적 기반」, 『조선시대사학보』 제3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135-166면.
_____, 「18세기 洛論系學脈의 변모양상 연구」, 『역사교육』 제10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7, 63-95면.
조지형, 「京山 李漢鎭의 생애와 문예 활동」, 『대동문화연구』 제71집, 대동문화연구원, 2010, 191-226면.

【Abstract】

Capital Elite Kim Yong-kyeom's Life and Companionship in 18th Century Korea

Park, Hyun-Soon*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and companionship of Kim Yong-kyeom (1702-1789) through special memories left by capital-based intellectuals in late 18th century.

Kim was born to a Noron Jangdong Kim's family and got involved in a broad network of Nakron School formed over a number of generations. From this background, he appeared as a Nakron scholar with aspect of traditional Neo-Confucianist. However, Kim regarded the then academic tradition as 'fake Neo-Confucianism' and attempted to pursue 'true Neo-Confuciansim' through ancient rites and extensive learning. Extensive learning was an academic methodology for Neo-Confucianism, but the methodology itself turned out to represent Kim's academic status rather than Neo-Confucianism.

It was this aspect that Kim attracted young scholar's attention. Kim shared ideas with those young people who got exhausted by the established academic tradition and enjoyed academic companionship with them regardless of age or status through his open attitude, and as a result, the network between them was built. Their relationship was not of teacher-pupil relations, and moreover Kim was not even at the center of that network. They just interacted with one another according to their interest, gain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expanded their own perceptions. This kind of network formed through extensive learning can be understood as a major characteristic of capital-based academia in late 18th century.

Keywords: Kim Yong-kyeom, Hwang Yun-seok, Yi Deok-mu, Capital Elite, Extensive learning.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